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음악분수 전주시가 시원한 봄 날씨를 보인 2일 덕진공원 음악분수가 가동을 시행한 가운데 산책을 나온 시민들 뒤로 시원하게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시정 공유시스템’ 구축

전주시 덕진구, 이달부터 운영... 뉴스자막처럼 직원모니터에 시정 알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구·동 직원들이 특례시 지정 등 전주시 주요현안을 시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정 상시공유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정 상시공유시스템이란 각 직원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주요 행사, 신규사업 등 현안에 대해 일정주기로

지정 문자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시정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컴퓨터 대기시간 시정홍보 화면보호기에 표출, 소동행정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현안사업 공유행정은 직

원들의 시정 업무에 대한 이해 확대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연수 구청장은 “시정상시공유시스템 시행을 통해 부서 간 원활한 협업과 이해가 구민을 위한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설렘 가득, 벚꽃 활짝!’

덕진구, 개화시기 따라 벚꽃 힐링의 장 조성
구청 벚꽃로, 이종호수·번영로 벚꽃길 등

전주시 덕진구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테마가 있는 덕진구 벚꽃주간이라는 타이틀 아래 벚꽃 개화시기에 맞춘 장소별 벚꽃 힐링의 장을 조성 할 예정이다.

덕진구 내 벚꽃 주요 명소로는 덕진구청 벚꽃로(우성상가~복전주세무소), 조촌동 고잔마을(만경강 뚝방길), 이종호수 벚꽃길(이종호수 뚝방), 번영로 벚꽃길(전군도로 벚꽃길), 조경단로 벚꽃길(21세기 병원 삼거리~동물원 삼거리~호성동), 전주 동물원(동물원 내)이 있다.

특히 덕진구청 벚꽃로는 빛과 음악이 있는 벚꽃로를 주제로 덕진구청 벚꽃화단을 지역민들과 공유, 경관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

해 야간에 더 매력적인 벚꽃감상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조촌동 고잔마을에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만경강 뚝방길 벚꽃잔치가 열릴 예정으로 2016년부터 고잔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추진하는 순수 지역주민 공동체 행사로 전통먹거리 장터도 마련 돼 있다.

뚝방길을 찾은 관광객들은 5km, 1000여그루의 왕벚나무에 둘러싸여 하얀 벚꽃비를 맞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종호수 벚꽃길’, 전군도로 ‘번영로 벚꽃길’, 한적하게 걷는 아름다운 ‘조경단로 벚꽃길’,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수 있는 동물원 벚꽃길 등 덕진구 내에 조성

된 다채로운 벚꽃명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덕진구에서는 벚꽃시즌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제거를 위해 구청내 화장실 24시간 개방 및 명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특별기동반 운영, 교통지도를 위한 주장차특별지도판 편성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덕진구의 맞춤형 벚꽃주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하얀 벚꽃비를 맞으며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청에서도 만족스러운 벚꽃 힐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편의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명품하천 정비 나서

덕진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으로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 사업을 추진한다.

덕진구는 25일 도심 내 전주천, 아중천, 건산천, 노송천, 조경천 산책로 23km에서 공무원 및 자원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 대대적인 새봄맞이 하천 운동시설물 점검 및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과·동 담당구역별 지정, 공무원 및 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하천순찰 강화 및 하천정비를 할 예정이다. 특히, 하천 주변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다리 밑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교량하부 비둘기 서식지인 추산대교와 혁신도시 월방교·월평교에 비둘기 서식 방지망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다리 밑 비둘기 배설물을 제거하는 한편 비둘기 서식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둘기 모이주기로 인한 증식을 막기 위해 먹이제공 금지 안내판도 제작, 부착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태하천으로 사랑받고 있는 전주천에 낙하분수를 설치하는데 4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할 사항들을 적극 조사·반영해 6~9월까지 정식 운용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 금속가공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는 2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2019년 소공인 협업아이템 공모전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

전주 금속가공소공인들 ‘협업 아이템 공모전’ 개최

전주지역 금속가공소공인들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전주 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회장 김강석)는 2일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 ‘2019년 소공인 협업아이템 공모전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으며 센터와 소공인협의회는 우수 아이템을 선정, 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주금속가공소공인만의

협업아이템을 만들고 협업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전주 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개소 후 전주지역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우수아이템 발굴, 기술교육, 작업환경 개선, 협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협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전주지역 소공인들의 협업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전북대병원, 산소포화도검사 실시 등 전체 항목 100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폐렴 3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3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폐렴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4위로 특히 노령 인구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며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인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폐렴 적정성 평가는 폐렴의 진단 및 치료의 질을 개선해 국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폐렴 3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 499곳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

구 사용률 △객담도말 검사 처방률 △객담 배양 검사 처방률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인율 등 전체 항목에서 100점을 받아 종합점수 만점을 획득하며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평가대상 기관들의 종합점수 전체 평균인 79.1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로 전북대병원이 전국에서 폐렴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호흡기전문의화센터로 중심으로 뛰어난 진료역량과 연구능력을 발휘해 폐렴 등 호흡기질환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이달 말까지

혁신도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인후공원에 이어 전북혁신도시에도 아이들이 숲속에서 뛰어놀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숲체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총 2억원을 투입,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교(덕진구 중동 834) 내 1만㎡ 규모의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야호숲비터와 야호생태비터에 이은 아이들을 생태숲에서 놀게 만드는 전주 아이숲 조성사업의 세 번째 모델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시는 도심숲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존 수목과 자연재료를 활용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으로써 5세부터 7세 사이 유아들이 맘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며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는 △흙놀이·뱃줄·나무를 활용한 진흙놀이, 나무실로폰, 나무오르기, 그네 등 체험놀이공간 △곤충아파트, 빗물저금통 등 숲의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비바람을 피하고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숲대피소와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이 조성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 총장선거 허위사실 유포 경찰, 현직 교수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우려 있어”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B경감을 만나 이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에 B경감은 17일과 18일 두차례 전북대에 방문해 이 총장에 대한 탐문활동을 벌였고, 이를 본 일부 교수들은 ‘비리 내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을 올렸다.

이 같은 ‘의혹 유포’는 ‘비리 내사’로 불려져 이 총장은 선거에서 낙마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B경감을 만나 이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에 B경감은 17일과 18일 두차례 전북대에 방문해 이 총장에 대한 탐문활동을 벌였고, 이를 본 일부 교수들은 ‘비리 내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을 올렸다.

이 같은 ‘의혹 유포’는 ‘비리 내사’로 불려져 이 총장은 선거에서 낙마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부안 운호 고령도 채굴신청 주민 반대집회 등 반발 거세

충남 부여 A 업체, 전북도에 신청 최종 인가여부 결정 주민들 “운호·진서 주민 전체가 큰 피해 채굴 막을 것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 관광부안 이미지에 큰 타격”

충남 부여의 A 업체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원에 대규모 고령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진서면 석포리 등에서 고령도 채굴신청을 했지만 최종 불허처분을 받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A 업체는 전북도에 고령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전북도와 부안군 등이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서면 운호리 일원에 대한 대규모 고령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일 부안군 진서면 주민들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진입로 앞에서 고령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취소하라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현장에는 문찬기 의원, 김정기 의원, 진서면이장단협의회장 하운기, 내소사 주지스님, 운호마을 주민 등 100여명 참석했다.

하운기 이장단협의회장은 “A 업체가 고령도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한 곳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바다를 낀 해안관광도로에 근접해 있고 천년고찰 내소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

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인가를 신청한 곳은 압반 지대로 고령도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석채취 등을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운호리는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천혜의 관광지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에 채굴이 이뤄질 경우 운호주민 뿐 아니라 진서면 주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굴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채굴예정지의 경관훼손과 소음, 분진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 것”이라며 “대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서면 곰소시장의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채굴인가가 이뤄질 경우 곰소시장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와 함께 “운호리 일원은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안관광도로의 중심부로 주말이면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찾고 있는 명소”라며 “이곳에 대규모 고령도 채굴장이 생긴다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

전북경찰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증거추세를 보이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청이 지난 2015년 4월 2일 지정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전주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예방 예방수칙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해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강석훈 기자

아내 살해·유기 혐의 50대

유치장서 손톱깎이 숨겨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숨겨 병영으로 실러가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4시경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A모(54)씨가 손톱깎이를 숨겼다.

당시 A씨는 손톱을 자르고 싶다고 관리인에게 손톱깎이를 요구했다.

이에 관리인은 규정대로 별도의 날 불이가 없는 손톱깎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A씨는 10여분이 지나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거지된 진술을 일관했다.

관리인은 유치장 안을 수색했으나 손톱깎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X-레이를 촬영을 통해 배 속에서 손톱깎이를 발견했다.

이후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A씨의 몸 안에서 손톱깎이를 꺼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손톱깎이를 삼킨 이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경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모(6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석훈 기자